



한인회보

Washington State Korean News

The Wash. State Korean News
is Published Monthly by Seattle
Wash. State Korean Association
P.O. Box 24992 Seattle, WA 98124
James H. Kim Publisher

M. O. Han Editor

Vol. 7 No. 7

SEATTLE, 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September, 1978



씨 웨어 (SEA-FAIR) 행진 에서 의
대한 민국 해군



1. 씨-웨이 피크닉 잔치에서의 합대장.



2. 씨-웨이 퍼레이드에서의 우리해군들의 행진.



3. 한국해군 입항을 환영하는 우리교포 어린이들.



4. 한국해군 입항을 환영하는 씨애틀 지역원로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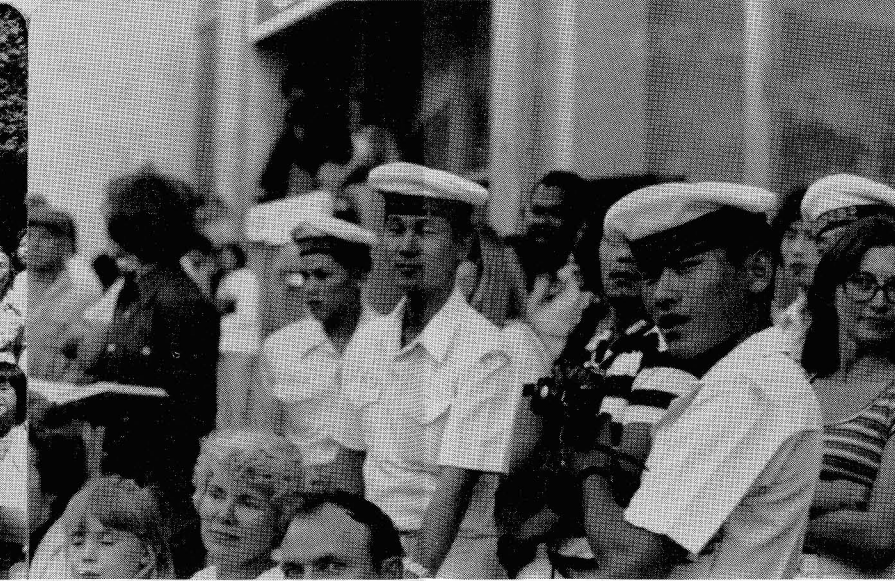
5. 한국해군을 열광적으로 환영하는 교포들.



6. 씨-웨이 퍼레이드에 참가한 어린이들과 "진"으로 뽑힌 한진이



7. 합대장으로 부터 감사장을 받는 한인회장.



8. 씨-웨이 퍼레이드를 구경하는 해군 아저씨.



9. 피크닉에서 대접받는 우리해군 아저씨.

알림

한인학교 장소 이전 및 한인학교 학술제
계획의 안내.

1. 한인학교 장소 이전:

한인학교 가 10월 7일 (토요일) 부커 아택의 장소
로 이전되어 열리게 됨을 알립니다.

올 가을의 장소는 담담목사 안성진목사님의 한인
장로 교회가 되겠습니다. 학부모 및 교포 여러분께서는
전과 다름없이 자녀들의 한인학교 교육에 계속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소: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SEATTLE
2728 N.E. 100th
Seattle, Wa. 98125
Tel: 523-2728 . 364-0092

2. 학술제 계획:

한인학교 학생들이 그동안 배운 과정을 모아 학술제
를 가지고 점심식사도 함께 나누고자 하오니 학부모
과 교포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날짜: 10월 28일 (토요일) 정오 12시

장소: 한인학교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SEATTLE
2728 N.E. 100th
Seattle, Wa. 98125
Tel: 523-2728 . 364-0092

자세한 문의는 한인회 (전화: 624-7604) 나 교육부장
윤부원 (전화: 774-8927) 씨에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만생 선생님.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4일부터 8월 7일까지 시애틀을
방문한 600여명의 한국 해군장병들께 내분이주선 단지를 성원에 힘입어
찾아보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만큼 아예 우선 기병으로 고마운 뜻을
전하여 드리는 바입니다.

보안으로 이 역사적이고 뜻깊은 환영행사의 준비위원으로서 또는 막중한
재정을 감당한 모금 위원장이란 직분으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격려로서 많은 모금달성 목공역인 \$5,000.00을 초과모금하여 시애틀-
와싱턴주 한인회에 정식으로 접수할라를 마쳤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와 같이 막대한행비용을 이 지역에서 성공리에 모금할 수 있었음은
교포 여러분들의 뜨거운 애국심의 발로와 동포애로써만이 가능했음을 자랑
으로 여기는 바이며, 이 지역 한인교회 관례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교포
기행인들의 지원이 고무적이었음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또 시애틀 주에 한국 총영사관의 헌신적인 승은 노고의 보상으로
행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음을 이 기쁨은 동포애로써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끝으로 이번 행사를 주관한 시애틀-와싱턴주 한인회 회장단 및 임원들과
차라리 한인회 및 부인회 임원들의 수고하는 보람으로 뜻있게 행사를
마칠 수 있었고 동포애로 무한 한국 커뮤니티의 힘을 여국사회에 안겨
되었음을 가장 큰 영광으로 생각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교포 여러분 가정마다 행복하시고 건강한 웃음이
항상 같이 하시며 언제나 하나님의 가르침이시길 믿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1978년 9월

신 호남 (정.신) 배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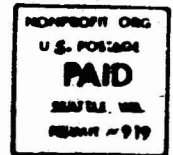
PROLITHO inc.

119 YALE AVE. N. • SEATTLE, WASHINGTON 98109

0505 000003145
HAHN, MAN SOP
12904 SE 45TH LANE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P.O. BOX 24992 / SEATTLE, WASHINGTON 98124



1979년도 한인회 회장 및 이사 후보자 추천공고

씨애틀-워싱턴주 한인회 계획 제 4장 19조에 의하여 지난 1978년 9월 13일에 있는 이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선거관리 위원회를 구성하고 1979년도 한인회 회장 과 이사후보자 추천을 공고 하오니 1978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요청에 의하여 추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음

1. 후보직 - 회장 단 : 회장 1명 부회장 2명. (회장 단은 회장 1명 부회장 2명으로 단일 구성되며 총회시 동시 직선함.)
이사 : 3명
2. 후보자격 - 본회의 회원으로써 최소 2년 이상 본회의 의무를 다한 자.
3. 추천방법 - 별첨추천용지에 정회원 (회비납부자) 의 추천을 받아 후보자의 동의서명을 필한후 1978년 10월 21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 한다.
4. 추천된 회장 및 이사는 회칙 19조 3항에 의하여 총회 15일 전에 이를 공고한 후 총회시 무기명 비밀 투표로서 선출 한다.

5. 선거 일자 및 장소

일자: 1978년 11월 11일 (토요일)
오후 7시
장소 : 104-17TH AVE. S.
SEATTLE, WA. (AT YESLER)

6. 입후보 등록 기간

1978년 10월 1일부터
1978년 10월 21일까지.

7. 등록처

MANSOP. HAHN
12904 S.E 45th LANE
BELLEVUE, WA. 98006

8. 기타사항

선거세칙에 관한 문의사항은 선거관리 위원장에게 (전화 641-5739) 문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첨: 회장 단 및 이사 입후보자 추천서

1978년 9월 17일

씨애틀-워싱턴주 한인회

1978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한만섭
위원장 김원준
위원 김철준
위원 김부영
위원 허권

하는 많은 제가 이번 학기에 성적을 아주 잘 받아 올때니 엄마가 반제가 반을 부담 하자는 것이었다. 너무도 사랑스럽고 귀여움에 나는 대답을 못 했다. 얼마 후 성적표를 받아 주고 와서는 콘소리로 엄마가 전부 부담하라는 것이다. 성적이 아주 좋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나는 고만논물이 핏 들었다. 그날 밤 나의 기도속에 눈물로 뽀송뽀송한 언어가 실은 이곳 개척 생활속에서 늘 자식을 이해할 수 있는 부모, 부모님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자식이 되어지기를 몇 번이고 간구 했다. 자녀들과 부모간에 충분한 대화의 문을 열어줄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기를, 하면서 현재에 감사를 드렸다. 나는 다만 중요한 것은 별로 필요치 않은 물건을 쪼은 생각 없이 사려는 태도는 낭비생활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었다. 좀더 자식의 성장에 섬세한 밤마춤의 필요성을 느꼈다.

후고 환영

한인회보는 씨애틀-워싱턴 지역외에 타지역까지도 널리 발송되고 있습니다. 포포들께서 보내시는 원고는 상외 것 실어 드리겠습니다. 매월 15일까지 한인회 P. O. BOX 주소로 보내시면 됩니다. 고포 사외에 유익한 생활정보나 문제작품, 논설, 기바 어떤 내용이나 좋습니다.

편지 후기

안녕하십니까?
10월호 부버 편지를 받게 되어 우선지면으로 고포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정확하고 안전한 좋은 회보를 만 들수 있도록 고포 여러분들의 많은 신성원과 격려를 바라겠습니다. 인쇄와 발송에 많은 수고를 하시는 김기림 씨께 감사드립니다.

- 한명숙 -

식사가 한참중인데 둘째아이가 다정한 목소리로. "엄마, 내가 지금부터 할 말이 있는데 제대로 화내지 않고 들어줄 수 있죠?" "그럼, 엄마가 늘 화를 내던" 대답하면서도 몇 가지의 지난 일들이 머리를 스쳐간다. 내용인즉 자전거를 탈 때 쓰는 안전모자를 사야겠다는 중심의 이야기였는데 실명이 장장구구했다. 얼마전 60마일 자전거 달리기 에 나가기 전날 밤에 여러가지 준비물을 정리하면서 나누던 대화속에서 있었던 이야기였다. 그날 이야기론 안전모자가 필요하긴 한데 내일 하루를 쓰기 위해 많은 돈을 써가며 살 필요는 없다는 것이며 그건 낭비라는 것이다. 그래서 참아보겠다는 것이다. 나는 놀랍고도 흐뭇했다기보다는 철이 들은 것 같으면서도 생숙한 대화에 당황하며 엄청난 입이 타도 발 견 한 듯한 기분이었다. 현대 막상 경기 에 나가보니 저와 몇몇사람만이 갖지 않았음을 보고서 마음이 고만상했었고 변했던 것 같다.

그러나 꼭 사야겠다는 변한 그말에 잃은 희망 같은 것이 스쳐 가며 순간 한 마디로 "그림수는 없다. 한번 참아보겠다고 했던 마음이 그렇게 쉽게 변했음을 엄마는 이해가 안간다." 대화는 끊어졌고 허기졌던 저녁식사의 수저가 무거워 지더니 제방으로 가버리는 것이다. 아바께 말씀 드렸더니 너무 성숙된 아이로 판단하지 말고 또한 어린 마음에 상처가 되기전에 총족시켜 주는 말씀이시였다. 큰 아이한테 물어보니 별로 많이 사용 하지 않는 것이니, 제가 한번 잡아 이야기 해보겠다는 것이다. 이른날 일찍 나오느라 둘째와 대화의 마무리를 못했었기에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종일도록 학교 생활이 무겁게 될 것이 염려되어 학교로 떠나기전에 전화를 했다. 그러나 전화음성은 엄마의 예상과는 전혀 무관할 정도로 명랑한 어조 어조의 "엄마야, 내가 지난 밤에 생각했는데도 한번 말해도 되지요 괜찮겠지요? 하며 비었고 거침없이

선거관리위원장귀하 :

회장 추천서

회장 (1명) 후보자성명주 소
 부회장 (2명) 1. 후보자성명주 소
 2. 후보자성명주 소
 후보 동의서명
 상기자를 1979년 한인회 회장단으로 추천합니다.

추천인 1. (3명) 성명서명 주 소
 2. 성명서명 주 소
 3. 성명서명 주 소

선거관리위원장귀하 :

이사 추천서

이사 1. 후보자성명주 소
 2. 후보자성명주 소
 3. 후보자성명주 소
 후보 동의서명
 상기자를 1979년 한인회 이사로 추천합니다.

추천인 (1명) 성명서명 주 소
 추천된 이사중에서 3명을 선출 폐됨.

1978년 9월 일
 추천서 보낼주소 : MANSOP HAHN
 12904 S.E. 45TH LANE
 BELLEVUE, WA. 98006

● 특별 감사문 ●

지난 8월에 한국 해군 환영활동 즉 야유회와 "씨-퀘어" 행진에 많은 교포들께서 일치 단결하여 몰심양면으로 도와 주신 결과 이 지역에서 가장 큰 행사를 대성공적으로 가지게 된 것을 여러 교포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환영위원회 모금운동에 책임을 맡으신 신호범 씨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금된 금액은 \$5천불 이상입니다. 야유회 음식준비에 책임을 맡으신 오준걸 이사장님과 김관란 여사님께 특별 감사를 드립니다.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형제교회, 씨애틀 한인장로교회, 파로마 한인회 및 부인회, 김형식, 강백원(한국집식품), 조요한, 이현기, 김순옥, 박암, 권대원, 이은수, 김성길 선생님과 오대양, 중앙식품점, 경희대학동창회, 성군관대학동창회, 고령대학동창회, 또 온학득 사범과 제자들께서 음식운반과 기막장 리에 도와 주셨습니다. 이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교포 동원에 수고하신 최용길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씨-퀘어 행진에 책임을 맡으신 이형상 총무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연락과 섭외를 맡으신 김재호 선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진에 수고하신 (진) 한진이 (선) 김혜정(미) 한경희 또 해군을 알장서서 행진하신 주애리 씨에게 감사합니다. 또 이등립 씨와 해군출신구룹에서 해군장교들을 위한 디-너를 준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면의 제한으로 입입히 여기에 적지는 못하나 특별 감사문을 보내드립니다. 혹이나 빠지신분이 있으시면 그분들께도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한인회 임원 이사 전일동과 워싱턴주 씨애틀 총영사님, 장용걸 총영사님, 남홍우 영사님, 이선진 부 영사님들의 많은 협조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이 회보에 명단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신호범 모금 위원장께서 특별 감사장을 이번 회보를 통해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느끼는 것은 우리교포가 일치 단결하면 무엇이든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인회장 김형진

● 직업 재활 ●

워싱턴주 사회보건부 직업재활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해당하는 정신 또는 신체 장애자에게 직업재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 및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체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으로써 직업을 얻는데 상당한 지장이 되거나 또는 그로 인하여 그러한 지장을 초래 받는 경우.
2. 직업재활봉사를 받음으로써 실제 직업을 얻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경우.

훈련

여러 가지 직종에 대한 직업훈련이 직업전문 학교, 대학(해당 직업의) 현장 또는 보호된 작업장에서 마련됩니다.

수업료, 교과서, 장비 등의 경비 훈련을 받는데 필요한 수업료, 교과서 장비 등에 대한 경비가 제공 됩니다.

생활수당

훈련을 받는 동안 생활수당이 다른 기관과의 협조를 통하여 해결 됩니다.

직업알선

워싱턴주 정부 고용국, 각종 학교 등의 협조를 얻어 적절한 곳에 직업이 알선 됩니다.

사후 검토

알선된 직업에 대한 만족도를 확신 하기 위하여 각자의 취업후 진전에 대하여 사후 검토를 합니다. 더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다음 주소들의 직업재활 사무소 중 자기 거주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사무소에 연락 하십시오.

City	Street	Zip
ABERDEEN	405 West Wishkah	98520
BELLEVUE	15027 Main Street	98007
BELLINGHAM	222 Unity St., Lower Level	98225
BOTHELL	18315 Bothell way N.E.	98011
BREMERTON	Olympic Center Building #217 - 3423 Sixth Street	98310
BURIEN	149 SOUTH 140Th	98166
CHEHALIS	2025 N.E. Kresky Road	98532
COLVILLE	1100 South Main, Route 3	99114
EVERETT	302 Central Building	98201
LONGVIEW	1130 - 14th Avenue	98632
MAPLE VALLEY	15825 - 228th Avenue S.E.	98038
MOSES LAKE	Vista Village Shopping Center.	98837
MT. VERNON	1220 Memorial Highway	98273
MOU FLAKE	21309 - 44th Avenue West TERRACE	98043
OLYMPIA	5000 Capitol Building	98501
PASCO	800 West Court	99301
PORT ANGELES	403 East Eighth	98362
PUYALLUP	1004 East Main	98371
SEATTLE	3013 South Mt. Baker Blvd.	98144
	4208 Stone Way North	98103
	Room 1023 Smith Tower	98104
	1700 East Cherry	98122
	9501 Fifth Avenue N.E.	98115
	619 Second Avenue, Room 202	98105
	1107 N.E. 45th	98155
	1606 N.E. 150th	98122
	1701 Broadway; BELL 107FA	99204
SPOKANE	510 Hutton Building	98402
TACOMA	302- 1305 Tacoma Avenue	

뒷소식

- 씨애를 시장께서 온전 면허 채짜자, 한인 주 소록등 발간을 축하하는 서신을 보내 주셨습니다.
- 고포 어력분들의 많은 신성원으로 대한민국 해군 환영대회를 성황리에 끝내셨습니다. 이에 따른 미인대회에는 "진"에 한진이 "신"에 김혜정"미"에 한경희가 선발되었습니다.
- 서울 경기국민학교에서 씨애를 한인 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 서울 경기국민학교에서 씨애를 한인 봉사선배와의 자매결연 및 기념의 페난트도 학용품을 보내 주셨습니다.

8월 10일

DEPT. OF MOTOR VEHICLES STATE OF WASHINGTON
HIGHWAY - LICENSE BLDG OLYMPIA, WA 98504
LOU SCHNEIDER
으로부터 온전 면허 채짜자 요청이 있어 200 권을 발송 하였습니다.

야유회를 링컨 파 (LINCOLN-PARK)

에서 8월 6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광고

한인 학교에서 유치부에서부터 국민학교까지의 교사들을 채용 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매주 토요일 9시부터 12시 사이입니다. 시간당 \$5.00 이라고 하며 자세한 것은 교육을 담당하고 계신 윤 부원 (전화번호: 774-8927) 로 연락 바랍니다. 많은 신용도를 바랍니다.

취미 생활

10월 15일부터 시작되는 사냥철을 맞이하여 취미있는 신분은 체육부장 이신 남씨 (전화번호: 362-5714)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에따른 총구입, 장비기바사함에 대해서도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헨리장 여행사
Henry Chang Travel Service
국제 국내항공권 취급
이민 상담
재정보증서 작성
Tel. (206) 523-7057
9002 12th Ave. N.E.
Seattle Wash. 98115

진원중부동산
(FRANKI HYUN CHOONG KIM)
주무분야: 홈소, 아파트, 상점, 비어있는
무로입업: 정복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 매매, 렌탈, 주력, 아파트, 호텔, 단지
• 점포, 기지사업, 투자안내
Phone: SEATTLE (206) 774-7828, (800) 774-7828, (509) 7200
Tacoma 437-2112

안 내 사 항

주독 대사관에서 서독 파견 제 2차 광부들의 계약 만료에 따른 최종 결산금을 지급 하고자 하니, 씨애를. 위싱턴 내에 거주 하시는 고포분들중에 서독 파견 광부 출신자가 있으시면 다음 안 내문을 참조하여 꼭 씨애를 영사관의 확인을 거쳐 외환은행 프랑코프르트 지점으로 신청보류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청서는 영사관이 나 한인회로 연락 하시면 받으실수 있습니다.
제 2차 광부 특별회계 적립금 최종 결산금 지급 안 내문 :
1970-1976년도 기간중 3년 계약을 만료 한 자에 추가 하여 1977년도 기간중 3년 계약을 만료한 광부 특별회계 적립금 최종 결산금을 아택와 같은 명령으로 지급 하오니 해당자 어력분께서는 빠짐없이 수령 하시기 바랍니다.

1. 최종 결산금 지급 해당자 : 1977년도에 3년 계약 만료자 (26-35인) (중도 해약자, 사망자 포함, 사망자는 유족이 신청)
2. 지급 시기 : 1978. 8. 20 부터
3. 최종 결산금 지급 신청서

지급처: 한국 외환은행 프랑코프르트 지점.

4. 최종 결산금 지급 신청방법:

• 제 3국 체재자(미국, 캐나다, 브라질 등 외국 거주자)
가. 제 2차 광부 특별회계 적립금 "최종 결산금 송금 신청서" (2부) 에 거주지 관할 야국 공관의 영사확인 받아 한국 외환은행/후랑크푸르트 지점에 우송 하시면서 신청인의 거택은행 계좌로 자동 송금됨.

나. 본국 가족에게 위임송금코자 하는 자는 독일 체재자의 신청서와 과 같은 으며, 단 거주지 관할 야국 공관의 영사 확인을 받을 것.

독일 체재자

가. 외환은행/후랑크푸르트 지점에서 직접 수령코자 하는 자는 등 지점에 비치된 신청서 2부와 여권을 제시 하면 직접 지불함.

나. 원거리 거주자는 적립금 가결산금 본국 가족 위임 때와 같이 본인의 여권 신청서, 사진 2장 (여권의 4-5페이지) 을 포포 카피 하여 그 뒷면에 "제 2차 광부 특별회계 적립금 최종 결산금 송금 신청서" 2부 작성서 한국 외환은행/후랑크푸르트 지점에 우송 하면 신청자의 거택은행 계좌로 자동 송금 됨.

ARBEITSATTACHE
BOTSCHAFT DER REPUBLIK
KOREA, ADENAUERALLEE 124
5300 BONNEN, W-GERMANY
(문의처)

문화 교류

유학생들을 통하여 국제적인 이해와 생활을 교류 할수 있는 기회를 원하시는 가정에 만들어 주고 있는 기관인 **FLUTS (THE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THROUGH STUDENTS)** 에서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의 목적은 외국학생들을 미국 가정이나 미국에서의 생활을 소개하며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는 가정에 한정된 기일동안 같이 생활하게 하여 국제적인 이해를 돕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으며, 우리교포 가정에서도 많으신 신청이계시기를 바랍니다.

프로그램

1. 모임: 피크닉, 초대 등의 시간을 단체에 들어 있는 각 가정과 외국 학생들과 가집니다.
 2. 문화 활동: 오페라, 음악회, 박람회 필름 등을 통한 문화 교류.
 3. 견학: 여러분야의 산업단체에서 학생들이 보고 배울수 있는 기회가 마련됩니다.
 4. 생활정보: 외국학생들에게 교통, 소비생활, 일반적인 생활상 태 등을 알립니다.
- 그외에 여러가지 유익한 프로그램 제공되고 있습니다.

문의 하실것이 있으시거나, 신청서가 필요 하신분은 한인회나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를 바랍니다.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THROUGH STUDENTS
307 STUDENT UNION FK-10
UNIVERSITY OF WASHINGTON
SEATTLE, WASHINGTON 98195

한인회비 납부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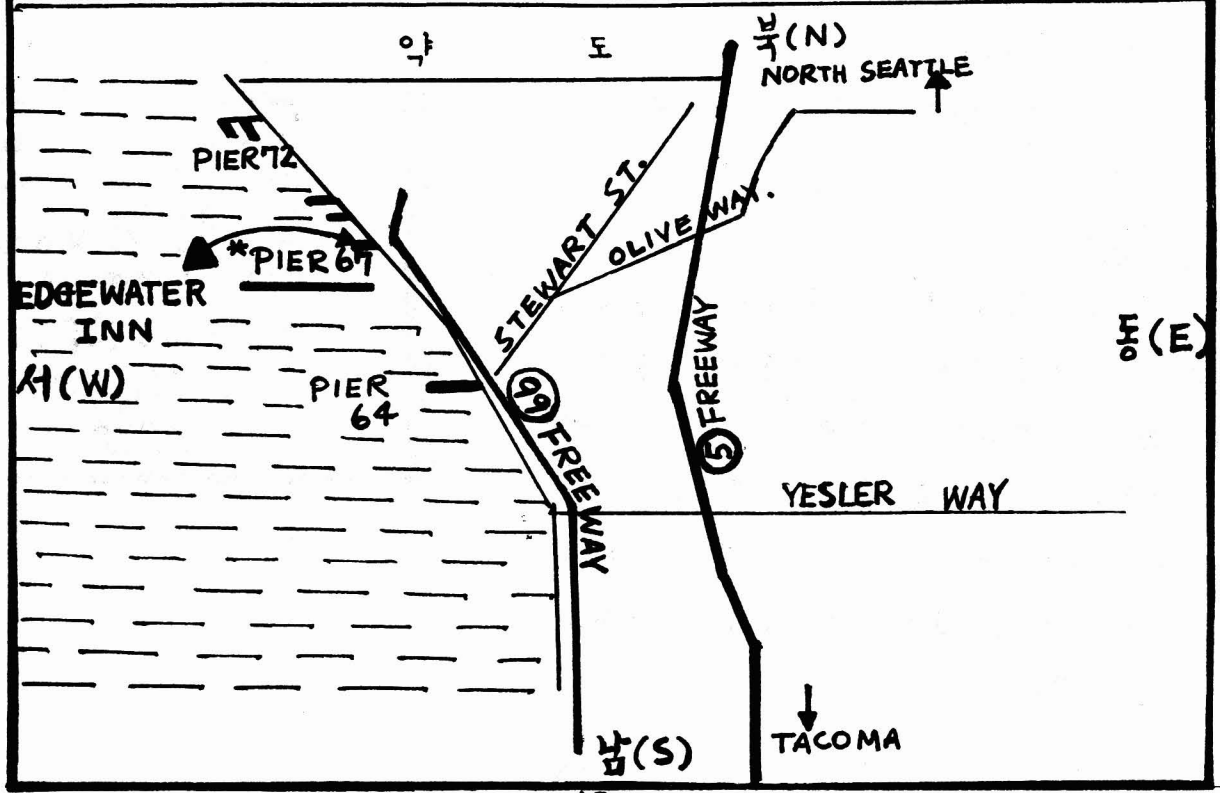
씨애틀-워싱턴 주 한인회는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수입원이 없습니다. 한인사회를 위하여 일을 하는데에는 적지않은 운영비가 필요합니다. 회보발간과 사무실유지비등 기탁에 필요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여러교포들께서 보내주시는 회비와 기부금으로 오늘날까지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이점을 생각해서 관심있는 협조를 바랍니다. 보내실 때는 반드시 수표를 이용하시고 "회비" "기부금" 을 구별하여 명기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용식 대사 환영

이번 10월 19일 김용식주미대사께서 씨애틀을 방문 하십니다. 김용식대사님환영을 위한환영회가 한인회 주최로 아택의 장소에서 열리게 되오니 교포 여러분의 많은참석을 바랍니다. 이날 김대사님의 방문 연설이 이지역교포들을 위하여 특별히 준비될것입니다.

장소 : EDGEWATER INN * *Mainsail Room*
2411 ALASKAN WAY (PIER 67)
SEATTLE, WA. 98121
TEL: 624 - 7000

(약도를 참조 하시기를 바랍니다.)
때 : 10월 19일 (목요일)
오후 6시30분 - 7시 사이.
딱-킹은 쉽게 하실수가있겠습니다.
각자디-너 경비는 모두포함하여 \$ 10.00불 이내가 될 것이며, 들어오시는 입구에서 지불 하시시기 바랍니다.



감 사 장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4일부터 8월 7일까지 씨애크를 방문한 600명의 한국 해군 장병들에게 베풀어 주신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찾아와 뵙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 줄을 아오나 우선 지면으로 고마운 뜻을 전하여 드리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역사적이고 뜻깊은 환영 행사의 준비위원으로써, 또는 막중한 책임을 담당한 모금 위원장이란 직분으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격려로써 당초 모금 달성목표액인 \$5,000.00 을 초과 모금 하여 씨애크-워싱턴주 한인회에 정식으로 접수 절차를 마쳤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와 같이 막대한 환영비용을 이 지역에서 성금리에 모금 할 수 있었음은 고포 여러분들의 뜨거운 애국심의 발로와 동포애로써만이 가능했음을 자랑으로 여기는 바이며, 이 지역 한인 교회 단체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교포 기업인들의 지원이 고부적이었음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또 씨애크 주재 한국 총영사관의 헌신적인 도움은 노고의 보답으로 행사를

무사히 마치게 되었음을 이 지면을 통해 감사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곁으로 이번 행사를 주관한 씨애크-워싱턴주 한인회 회장 단 및 임원들과 박모마 한인회 및 부인회 임원들의 수고하신 보람으로 뜻깊게 행사를 마칠 수 있었고 동포애로 뭉친 한국 북부 지역의 힘을 미국 사회에 알리게 되었음을 가장 큰 성과였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고포 여러분 가정마다 행복하시고 건강 한 웃음이 항상 감이 하시며 언제나 하나님의 가호 있으시길 빌면서 감사의 말씀 드리는 바입니다.

1978년 9월

신 호 벅 (필 . 신) 배상

한국 민속품 전시회 개최

한국의 전통적인 수준 높은 민속품들을 한자리에서 모은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훌륭한 민속 예술을 감상하실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시도록 고포 여러분의 많은 참석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번 에 전시되는 작품들은 우리 가 흔히 볼 수 없는 수동식 베를 짜기, 도자기, 병풍, 그림 등으로 구성된 오래동안 개인 수집가들이 소장해오던 것들로서, 많은 기대를 가져 봅니다.

장 소 : WING LUKE MEMORIAL MUSEUM

(주소 : 4114 8Th Ave. South Seattle,

Wa 98104, Tel: MA 3-5124)

때 : 9월 7일 (목요일) 부터 10월 31일 (화요일) 까지
 일반인 관람은 매주 화요일 부터 금요일 사이 아침 11시 부터 오후 4시 30분 까지 가 되고 있습니다.

9월 20일자 씨애크 타임즈 석간신문에 이번 전시회에 대한 기사 "호랑이 그림" 과 함께 소개 되었습니다.

한인회비 납부자 명단

- 39. 이 은 수 : \$ 10.00
- 40. 이 수 호 : \$ 15.00
- 41. 궁 장 영 : \$ 10.00
- 42. HYE JIN MONTOLA : \$ 15.00
- 43. 김 덕 환 : \$ 15.00
- 44. 김 재 흥 : \$ 15.00
- 45. 정 영 철 : \$ 20.00
- 46. 이 춘 일 : \$ 5.00
- 47. NAM CHU PEARL : \$ 10.00
- 48. 장 창 명 : \$ 15.00
- 49. 김 등 호 : \$ 15.00
- 50. 최 금 순 : \$ 10.00
- 51. 지나.팍슨 : \$ 15.00
- 52. 김 무 영 : \$ 10.00

운전면허 출제자 기부금

- 임정길 : \$ 5.00 임경희 : \$ 10.00
- HYE JIN 서정순 : \$ 10.00
- MONTOLA : \$ 20.00 이석호 : \$ 5.00
- 강옥희 : \$ 10.00 한봉우 : \$ 10.00
- 이희경 : \$ 5.00 김성해 : \$ 5.00
- 서광철 : \$ 5.00
- 서광선 : \$ 5.00
- 최옥정 : \$ 10.00
- 김정애 : \$ 10.00

생활정보 ● 글쓴이: 김 정 호
 "은 가족이 즐길수 있는 운동 기구"
 미국에서의 생활은 늘 차를 타고 다니 모든 일을 보다 빨리 해낼수 있어서 시간이 더 남을것 같으나, 실상 그렇지 않다. 아침에 눈을 비비고 일어나 적당히 식사를 하고 직장애나가 하루종일 쫓기다 집에 돌아오면 신문이나 텔레비를 좀 보다 다시 잠자리에 드는 것이 보통이다. 운동을 별로하지를 않아 허탈이 되고, 체중이 늘면서 근육도 약해진다. 충분히 걸어서도 갈수 있는 거리도 늘 차를 타고 가게 마련이어서 다리운동이 특히 부족하게된다. 어떠한 좋은 운동방법이 있을까 하고 궁리하던중 최근엔 집주위를 뛰어돌아도 되고, 체육관에도 몇차례 가보았었다. 허나 날씨가 나빠 비가 온다던지 몸이 피곤하면 이도 귀찮고 특히 온가족과 함께 땀박질을 한다면 지 체육관 열간다는것은 더더구나 힘든 일이다. 하루는 궁리중 운동을 좋아하는 조카집에 방문했다가 우연히 "리바운더" 혹은 "조거(JOGGER)" 라는 운동기구를 발견했다. 이것은 소규모의 트럼플린(TRUMPLIN)으로 직경이 약1 미터, 높이가 22센티미터인 둥근 밧상만 한 크기로 방탄망을 수십개의 특수 용수철로 잡아댕겨 망위

에서 제조, 무용, 땀박질, 제자리걸음, 등을 할때 탄력성이 있어 골격이나 관절부분이 상하지 않도록 고안해낸 운동기구이다. 우리집포마는 가끔 침대에서 뛰는 버릇이 있어 담요와 옷이불의 끝이 많이 아닌데 이제부터는 이문제가 없어 더욱 다행이다. 혹 구입을 희망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 번호 : 367 -0923 에 연락하시
 던지 김동호 씨 (525 - 2981.오후 6시) 이후
 에게 연락하시도록.

광고 접수 ●
 한인회보에 광고를 내고 싶으신 분은 매월 15일 이전으로 광고의 퇴를 하십시오. 개인문제, 영업용 광고원고를 만드셔서 한인회로 보내시면 됩니다.
 연락전화 : 624-7604
 624-7607

- | | |
|-------------------------------------|---|
| 무억진흥공사 : \$ 100.00 | 한 만 섭 : \$ 30.00 |
| 구 범 회 : \$ 30.00 | 김 원 군 : \$ 20.00 |
| 안 병 용 : \$ 100.00 | 혜진 MONTOYA : \$ 100.00 |
| 서 두 수 : \$ 30.00 | 채 경 수 : \$ 20.00 |
| 심 상 훈 : \$ 20.00 | 성군관대학교 : \$ 100.00
동창회 |
| 원 지 준 : \$ 50.00 | NAM CHU PERARL : \$ 10.00 |
| 김 언 조 : \$ 100.00 | 혜식 SMITH : \$ 75.00 |
| 외 환 은행 : \$ 100.00 | NEW VENTURE : \$ 100.00
FISHERIES |
| 권 태 원 : \$ 100.00 | 곽 증 세 : \$ 50.00 |
| 이 창 희 : \$ 100.00 | 현 식 노 : \$ 50.00 |
| 신 호 범 : \$ 500.00 | 오 대 양 식품 : \$ 100.00 |
| 총 영 사 관 : \$ 500.00 | 조 영 : \$ 30.00 |
| 김 건 영 : \$ 100.00 | GEORGE ZUNCS : \$ 10.00 |
| AUBREY ARAMAKI : \$ 10.00 | 김 흥 식 : \$ 500.00
(삼미사) |
| 복 음 교 회 : \$ 100.00 | 씨 애 를 한 인 : \$ 100.00
장로교회 |
| 헨리.장 여행사 : \$ 10.00 | 심인수 UNION PACIFIC TRADING CO.,
: 농악기구 구입에 \$ 717을 직
접 영사관을 통해 지불했음.
음식을 기부하신분들 |
| 이 영 호 : \$ 10.00 | 조 요 한 : 불고기 100인분 |
| 오 준 걸 : \$ 500.00 | 김 형 식 : 과일 한상자 |
| 안 상 인 : \$ 20.00 | 강 태 원 (한국식품점) : 김치 5갈론 |
| 호 성 물 산 (유해수) : \$ 500.00 | 이 현 기 : 무생채 100인분 |
| 한 분 : \$ 20.00 | 김 순 옥 : 바나나 2상자,
시금치나물 100명분 |
| 김 창 성 : \$ 20.00 | 박 암 : 생선전 100.00 |
| 김 철 준 : \$ 100.00 | 권 대 원 : 오렌지 1 상자
김치 3 갈론
사과 1 상자 |
| 이 순 보 : \$ 100.00 | 약속한분-김인국 : \$ 150.00 |
| 하 중 해 : \$ 20.00 | 김 일 영 : \$ 200.00 |
| 안 병 영 : \$ 100.00 | |
| 신 석 한 : \$ 20.00 | |
| 박 기 동 : \$ 50.00 | |
| 이 동 립 : \$ 500.00 | |
| 김 상 철 : \$ 300.00 | |
| 김 재 호 : \$ 230.00
(술: \$ 170.00) | |



10.씨-휠어 퍼레이드에 참가한 아가씨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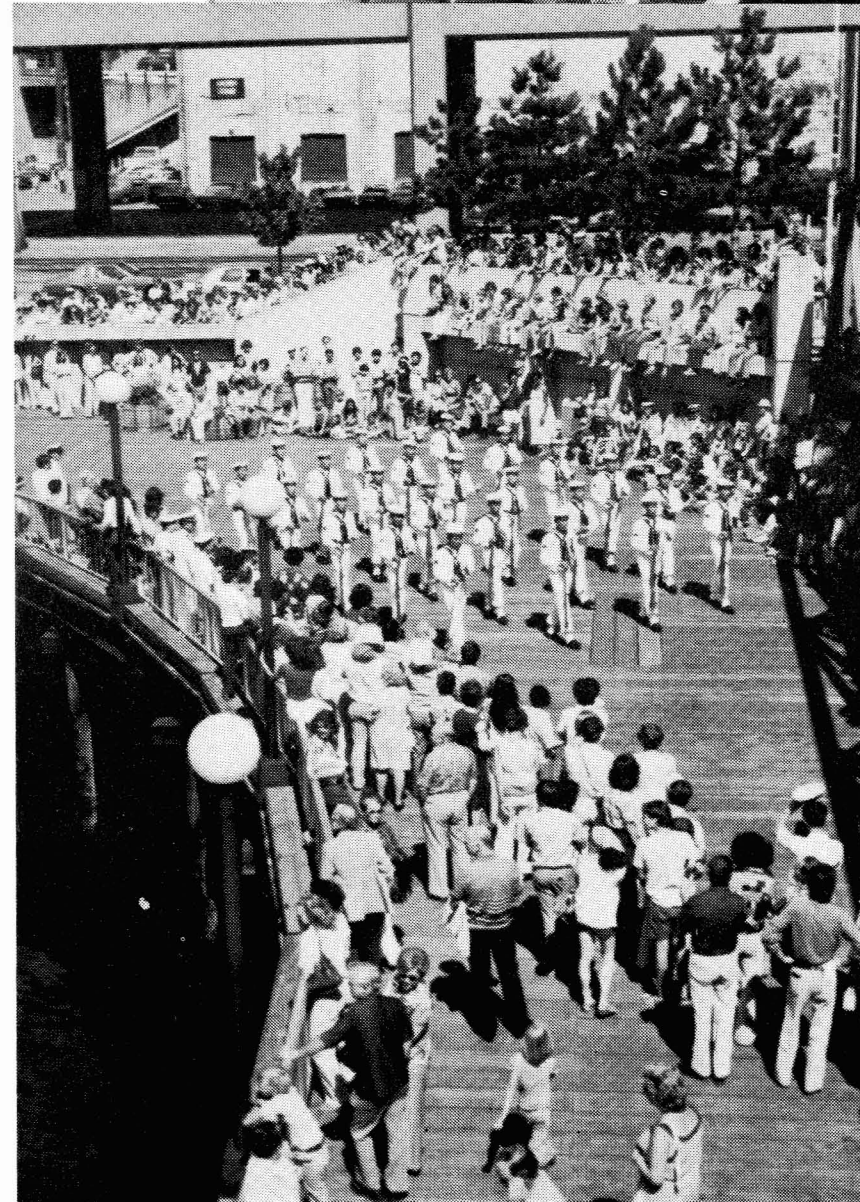
사진 제공 : 한만섭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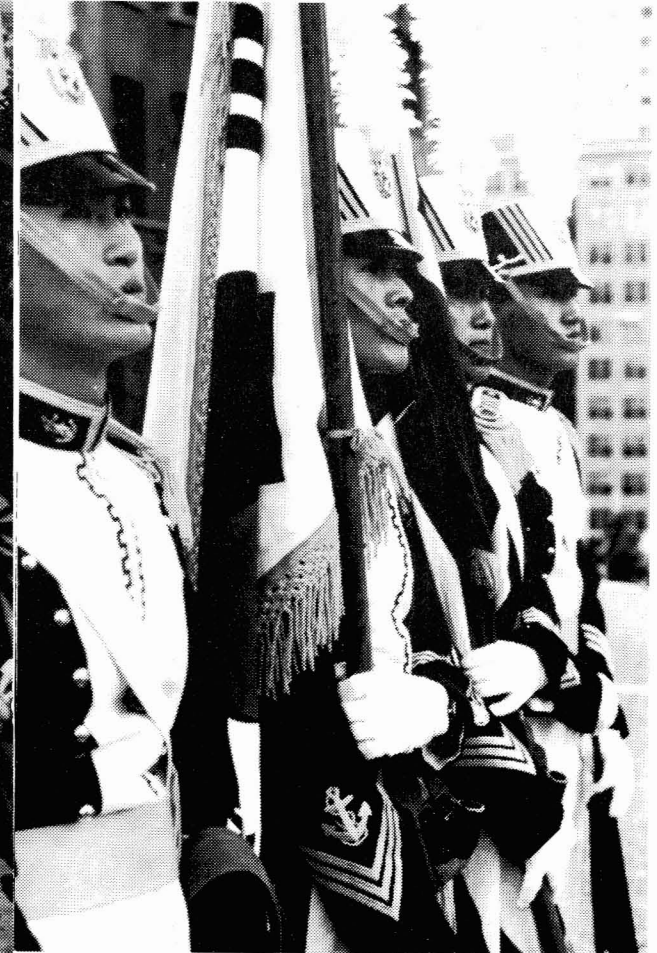
우리 해군의 연주



1.한국 해군 입항환영시 만세삼창을 하시는 우리 원로 고포분들.



2.한국 해군 행진.



3.늠름한우리해군.
사진 제공 : 홍경선